

영천경마공원, 유치 13년만에 첫 삽...30일 1단계 건설공사 기공식

이철우 도지사 “좌초될 수 있던 사업 각고의 노력 끝에 현실화됐다”
이만희 의원 “영천경마공원이 지방 국가중심시대 만들도록 하겠다”

서울, 제주, 부산경남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 경마장인 영천경마공원이 드디어 30일 오후 2시 첫 삽을 뜬다. 2009년 첫 유치로부터 13년 만이다. 그동안 조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마사회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았다. 이번 기공식으로 착공 여·부 논란에도 종식을 고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은 식전행사와 공식행사, 기념행사 3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지역 시·도의원 및 각 단체장, 시민 등 500여명이 함께 자리해 지역 미래 먹거리와 말산업 발전에 힘을 보탠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1단계 건설공사는 공사기간 1,294일(3년6개월) 동안 현대엔지니어링 외 3개사가 토목과 건축 및 조경을 나누어 맡는다.

1단계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1857억원을 투입, 부지 20만평에 8종의 경주거리와 2면의 경주로(모래), 편의시설, 지하1층 지상 3층 관람대, 마사(6동 100칸), 동물병원, 수변공원 등을 조성해 2026년 개장할 예정이다.

2단계 공사는 추후 1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루지 테마파크, 무동력 놀이터, 숲속 광장, 스마야카데미

“영천경마공원 기공식을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김인중 농림부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마공원이 건립되면 인구 유입과 관광 수입 창출로 영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하루 9천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마장 개장으로 7천500여개의 일자리도 생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좌초될 수도 있었던 영천경마공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현실화됐다”며 “영천경마공원을 문화·관광·레저·힐링의 지역 랜드마크로 성공시켜 경북을 말 산업의 성지로, 더 나아가서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했다.

앞서 최기문 영천시장은 “숙원사업인 경마공원이 13년 만에 본격 착공되는 만큼 문화·관광·레저·힐링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한국마사회, 경북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이번 기공식과 관련해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 완공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을 만들고, 경북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 ‘영천 발전’ 나아가 지방이 국가의 중심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천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도시다. 이번 경마공원 기공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지수 기자

농기계 안전사고, 70대~80대 가장 많아

8월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통계분석 결과 이송환자 420명(사망 24명·부상 396명) 발생

수확철에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기계 사고 중 70대~80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농기계 안전사고 통계분석 결과 이송환자는 420명(사망 24명·부상 396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별 사망자는 경운기 14명(58%), SS기 7명(29%), 트랙터 3명(13%) 순이다.

연령별로는 70대 8명(20%), 80대 6명(35%), 60대 5명(40%), 50대 3명

(13%), 90대·40대가 각 1명(8%) 이었다. 농기계별 사상자 대비 사망자 분석 결과 SS기가 41%(사상자 17명/사망 7명), 트랙터 5.8%(사상자 52명/사망 3), 경운기 4.2%(사상자 334건/사망 14명) 순으로 SS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치사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농기계 사고는 부주의, 안전수칙 미 준수로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농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핑크의 여왕] “휴일에는 운주산 승마장으로”... 가을이 깊어지면서 아침최저기온 10~18도, 낮최고기온은 21~25도에 머물면서 휴일이 설레는 계절이다. 이달 들어 운주산 승마장에는 분홍색 ‘핑크 물리’가 만개해 나들이객을 유혹한다. 영천시는 말문화체험관을 조성하면서 지난 2020년 3월 이곳 440㎡에 핑크 물리를 식재해 어린이승마장, 레일마차, 말 먹이 체험장, 계절 순환 꽃동산, 분수 등과 함께 방문객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있다. 9월~11월이 개화시기인 핑크 물리는 벼과 외떡잎 속씨식물로 원산지는 미국이며 키 높이는 30~90cm로 색상은 분홍과 자주색이다. 다만 정부가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워낙 색상이 빼어나 흔히 조경용으로 식재된다.

경 제11회 영천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축

대회일 : 2022년 10월 21일(금) **개회식** : 11:00

장 소 : 영천게이트볼구장(시민운동장 옆)

참가팀 : 영천시 6개 클럽 12개팀 90여명

협회임원 : 협회장 전무석, 고문 장득찬, 수석부회장 김호진, 여성부회장 박진남, 감사 이종열, 한중자, 이사 김종복, 이용태, 정민환, 이종식, 이선례, 김종섭, 교육위원장 김준환, 여성위원장 신윤희, 홍보위원장 김병호, 시설위원장 정춘식, 심판위원장 윤문숙, 청년위원장 장병태, 사무장 하옥선

참가클럽 : 영천클럽 회장 최만기, 금호클럽 회장 윤문호, 거여클럽 회장 허만옥, 신녕클럽 회장 김현수, 화산클럽 회장 이상진, 별빛클럽 회장 이재동

주최 : 영천시체육회 **주관** : 영천시게이트볼협회 **후원** : 영천시, 영천시의회

영천시게이트볼협회장 전무석 회장 010-7742-6982

영천시의회, 제225회 1차 정례회... 23일간 일정 마무리

행정사무 감사...경마공원 건립 홍보 및 현실적 적응방향 등 171건 지적
2회 추경안...시민체전(10억원), 문화원진입로(3200만원)등 21억 삭감
배수에 의원...별빛유아숲체험원(산림청) 안전관리 방안, 5분 자유발언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제225회 1차 정례회를 지난 2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9대 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예산안 심사)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지난 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 (23일)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의회는 지난 14~20일(7일간) 집행부 2022회계연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총 171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1억원 이상 공모사업 보고 미비, 각종 사업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관급자재 및

하도급 구매 지역업체 활용,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특정업체 집중 금지 등 모두 171건을 지적한 감사보고서가 채택됐다. 그러나 의회는 교복·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7개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안은 일부 수정 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배수예(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산림청 예산으로 당시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광광을 받고 2019년 조성된 '별빛 유아숲 체험원'의 시설관리 소홀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지적했다.

장지수 기자



하기태 의장이 23일 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폐회하고 있다.

대구 군부대 이전에 영천시 가세, 4파전 양상... 유치전 본격 시동

27일 군사시설이전단장 영천 방문
최기문 시장과 이전 논의 활발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인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칠곡군과 군위, 상주가 3파전으로 붙을 붙인

가운데 뒤늦게 영천시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는 연말까지 국방부에 이전협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는 27일 "윤영대 대구 군사시설이전단장이 이날 영천시를 방문해 최기문 영천시장과 군부대 통합이전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전하고 "유치전에 본격 가담

해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전을 본격 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영천은 기관보다 민간단체가 먼저 군부대이전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지역 선원포럼(회장 정민식)이 영천시부시장을 초청해 영천시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이보다 더 앞서 고경면에서도 백인걸 창하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이장들이 합심해 면민을 상대로 지난 달부터 서명운동을 펼치며 영천시의 적극적인 유치 자세를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민간단체들은 자료수집 미비에 전문성이 없는데다 2군사령부에만 초점을 맞춰 사실상 대구시 요구와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당장은 칠곡이 대구시와 가장 가깝고 민·군복합타운 형성을 내세우며 가장 적극적이지만 유리한 입지는 군위군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대

구시에 편입 예정으로 편입이되면 스스로가 신속한 사업추진이 용이해 가장 유리하다.

반면 영천시는 육군 3사관학교 인근 국방부 소유부지와 탄약창 부지를 활용하면 대구시가 요구하는 250만평이 거뜨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부시장을 단장으로 사무관2명, 팀장4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이전 TF팀을 꾸려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부지확보에는 군부대와 국방부가 열쇠를 쥐고 있어 적극성을 펼칠 수 없다는게 일반론이면서 단점이기도 하다.

대구시는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 등 대구 도심 군부대 7곳을 한꺼번에 이전한다는 구상을 27일 밝힌 상태에서 군부대 7곳의 시설 집적을 위해 최소 430만㎡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영천시는 이날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이 영천시를 방문한

것은 이날 초에 영천시가 후보지로 2~3개 추천한 것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한 것이다"면서 유치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군부대 주변 국방부 소유 가용부지가 많아 부지 확보에 용이하고, 중앙선 복선 전철,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등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로 역사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호국보훈 도시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당장 10월부터 국방부와 4개 국군부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관·군 협의체를 가동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안에 국방부에 이전협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단장은 이날 "대구시는 국군 부대는 2030년, 부지반환 절차가 이뤄져야 하고 미군부대는 2035년 부대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혀 군부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 도장 위조해 관리비 4800만원 빼돌린 아파트 관리인... 징역6월 법정 구속

법원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많고 입주민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경북 영천지역 D맨션 입주민들의 고발로 불거진 이 아파트 관리비 불법인출 사건은 관리인 A씨(67)가 구속되면서 종결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23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중 도장을 위조해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리비를 인출하려고 일하던 아파트 이름을 도용해 'OO맨션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한 도장을 만든 뒤 마을금고 입출금전표 5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1천만원 가량을 변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위조한 출금전표를 이용해 통장 개설 금고인 지역 한 마을금고에서 입주민 몰래 관리비를 불법인

출했는가 하면 지역 외 금고에서도 수 차례 인출해 지난해 연말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총 5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4천8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지수 기자

실종 신고된 영천시 공무원 A씨, 삼척 한 야산서 숨진 채 발견

무단 결근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된 경북 영천시 공무원 A씨(47)가 신고 하루만에 27일 강원도 삼척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7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금요일) 하루 연가 후 25일(일요일) 당직이었으나 나오지 않고, 또 26일 무단 결근까지 하

자 영천시가 26일 오후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께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해당지역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본지 취재 등에 따르면 A씨는 23일 연가 후 강원도 동해로 이동했다가 다시 삼척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CCTV 등을 추적해 신고 하루만에 A씨의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삼척 소식통에 따르면 A씨가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장지수 기자

'10대 상습 성추행' 40대 무도 학원장 체포

피해 학생들 단체 채팅방 대화 확인한 학부모 신고로 경찰에 달미

경북 영천에서 무도학원을 운영해 온 학원장 A씨(48)가 지역 10대 여학생 수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학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부터 학원을 다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련 및 면담 등의 명목으로 야산 등지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여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내용을 본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지난 13일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학생들은 현재 심리상담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일체 사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장지수 기자

이만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 선임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제3정책조정위는 입법과 국민의

안전,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총괄해 당과 정부의 정책을 조율하는 핵심 당직이다.

이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으며,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현재) 간사를 역임했다.

이만희 의원은 “당 제3정책조정위원

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을 위한 입법과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수 기자

[5분 자유발언]

국민의힘 배수에 의원



영천시의회 배수에(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영천시 망정동 산 14-5번지(4.7ha)에 조성된 별빛유아숲체험원 관리에 쓴소리를 냈다.

산림청에서 조성한 시설이지만 유지관리에 영천시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고, 실제 이용자는 우리 영천시민들과 지역 유아들이 만큼 영천시가 시민과 유아들의 안전에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배 의원이 지난 23일 영천시의회 225회 1차 정례회(3차분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영천시를 강도높게 지적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별빛유아숲체험원은 3년 전 산림청이 순수 국비 3억4600만원을 들여 아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 친화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밧줄놀이, 통나무다리 등 놀이시설 8종, 숲속교실, 숲 소파, 대피소 등 편의시설 5종과 운동시설 11종 등을 갖춰 실내교육에 익숙한 도시어린이들이 숲속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된 영천

망정동 ‘별빛유아숲체험원’ 관리에 쓴소리

“산림청시설이지만 우리시민과 우리 유아들이 사용한다”
“관리에 시예산 들어가는 만큼 유아안전 대책 강구하라”

지역 첫 숲체험 교육장이다.

개원당시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만희 국회의원, 경북도청, 영천시, 유치원협회 관계자 와 인근 유치원 어린이들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환호를 받았던 시설이다.

그런데 배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진입로 어디에도 유아숲체험원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본 의원조차 관리부실로 인해 잡초가 무성하고

입도로를 개설해 별빛유아숲체험원이 두 동강이 난 상태로 차량의 진출입시 유아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사진)

때문에 배 의원은 영천시가 도로 표지판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아들이 이동시 차량통행로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지적하자 영천시가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 망정동 14-5번지 별빛유아숲체험원, 영천시가 체험시설 한가운데 폭 8m 도로를 개설해 유아시설이 두 동강났다. (붉은 선이 유아 체험길 2022년 3월)

놀이시설이 방치되어 있는 등 일반 숲 길과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며 일갈했다.

체험원 위치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망정동 배수지 입구로 당시 영천시가 개선공사를 하면서 체험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배수지 진

이 때문에 배 의원은 “그렇다고 잠재적 사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영천시의 관리책임이 있는만큼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유아들의 안전과 방범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산림청에 관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

송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라”고 쓴 소리를 냈었다.

이날 배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380조 가량을 저출산대책에 투자했음에도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천’을 만들고자함이 아니냐”며 강조하면서 이같이 유아시설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배 의원은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의 책무는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시설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별빛유아숲체험원 관리 부실은 올해 3월 본지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아이들이 뛰노는 주변에는 간벌목들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벤치는 낡고 부식돼 이용이 어렵다. 쓰레기는 물론 곤충서식지와 나무로 만든 동물모형 조차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있는데다 숲체험 한가운데 영천시가 폭 8m 도로를 개설하면서 두 동강나 당초 유아숲체험원 본래 취지가 퇴색 될 우려와 유아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지적한바 있지만 영천시는 “(영천시)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시설관리청(영덕국유림관리소)으로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 방지 치유센터 건립’ 공청회

음주운전 재범률 44.5%

이만희 국회의원이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에 동의했다.

이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이 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관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구자근·박형수·양금희·이인석·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신설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또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문화예술의 혼~ 시민과 함께 걷다”

제 48회(2022) 영천문화예술제

기간 : 2022년 10월 14일(금)~16일(일)

장소 : 영천강변공원 일원

화합한마당

읍·면·동 줄다리기(10월 14일 10시~)

영천시민 팔씨름대회(10월 14일 13시~)

문의처 : 영천문화원 ☎054-334-3030



연계행사

제26회 왕평가요제(10월 16일 18시~)

전국품바경연대회(10월 16일 10시~)

댄스 및 실용댄스 페스티벌(10월 15일 10시~)

영천곳나무싸움 시연(10월 14일 11시~)

주최: 영천문화예술제추진위원회 주관: 영천문화원, 영천예총 후원: 영천시, 영천시의회, 한국예총, 경북예총

경북도, 동해안 파도 이용해 전기 생산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파력 발전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울릉 태하포구·현포항·남양항, 포항 영일만항 파력발전 적합

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경북도는 27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 동해안 파력발전 기획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 관계기관을 비롯해 용역수행 업체,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북 동해안에서 파력발전이 가능한 후보지에 관하여 최종보고,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도비 3천7백만원이 투입된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의 연안, 도서지역 방파제 연계형 파력발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파력발전은 파도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에너지로 태양광, 풍력에 비해 날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파력발전은 미국, 영국 등 EU 일부 국가만 기술을 확보한 상황으로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제주도(추자도)에 파력발전 실증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경북에는 울릉 태하포구(지방어항), 울릉 현포항·남양항(국가어항), 포항 영일만항(무역항)이 파력발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 동해안의 연안 및 도서지역에 파력발전 실증시험을 통해 경제성이 입증되면, 본격적으로 파력발전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근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파력발전 기술은 실증단계이며, 경북 동해안은 파랑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파력발전을 도입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우 객원기자

청도군, 3년 연속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선정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농귀촌인과 연계한 지원센터 운영·교육·체험 및 지역영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말농장 운영, '청도 어때' 캠프 운영, 귀농인의 집 조성, 청도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청도군수는 "귀농귀촌인들의 많은 참여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2023년 귀농귀촌유치지원 사업을 계획한 결과, 좋은 평가에 감사드리며, 우리 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2022 새마을 환경살리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오전 경북 청도군 청도천 둔치를 향하고 있는 신창원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회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 김하수 청도군수.



둔치에서 집결한 도내 23개 시군 재활용품 트럭 500여대

청도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 2년연속 최우수기관 수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실시된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으로 복수유형 수행기관

과 단일유형 수행기관으로 구분해 심사되었으며, (사)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가 단일유형(공익형사업단)부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 5백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사)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지회장 황윤성)는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청도군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까지 노노케어활동, 경로당깔끔미지원활동, 사서도우미활동, 승강장깔끔미활동, 지역사회환경개선활동 등 16개의 다양한 사업단에 1,275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도 폐의약품수거친환경지킴이활동, 시니어금융업무지원사업 등 신규 일자리 창출하여 청도군의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수행기관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축하하며, 양질의 노인일 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지수 기자



청도, 새마을 환경살리기운동... 경북 전 시군으로 확대

폐자원 순환, 23개 시군 재활용품 트럭 500대 장관

경상북도와 청도군은 28일 오전 청도천 둔치에서 도내 23개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실은 트럭 500여대가 참여해 장관을 이루면서 2022 새마을 환경살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여 년간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환경살리기 폐자원순환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산하는 의미를 담아 도 단위 행사로 승격됐다.

도는 올해부터 새마을 환경살리기 시군 자체행사를 추진하도록 도비 보조금 지원, 연말 새마을종합

평가와 환경살리기 분야 평가를 통해 연말 최우수 시군에 시상도 할 예정이다.

새마을 환경살리기는 시군 읍면동 전역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중심이 돼 지역주민들과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환경운동으로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 집 고쳐주기 및 소외계층 생필품 전달 등 지역 나눔을 위해 쓰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유제철 환경부차관, 임종식 교육감, 김하수 청도군수, 신창원 한국자원순환단체 총연맹회장, 이종평 경북새마을회장을 비롯한 2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장지수 기자

"중고 농기계 구입하세요" 청도군, 내구연한 경과한 불용농기계 매각

관리기와 로타리, 탈곡기, 목재파쇄기 등 95점 10월 10일부터 온비드 전자입찰

구연한이 지났거나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한 농업용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굴착기, 목재파쇄기 등 95점이다. 10월 19일까지 풍각면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산서분소)에 전시하고, 10일부터 열흘간 온비드를 통해 전자입찰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매각 농기계는 코로나 여파로 농촌의 인건비 상승과 인력확보에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시장에서 물품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입찰 참가 희망자는 10월10일부터 실시하므로 19일 오후 6시까지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장지수 기자



울진 망양정, 한반도 횡단 숲길 '동서트레일' 첫 삽

경북구간 275km 우리금융 ESG 기금 8억 투입

경북 울진 망양정에서 한반도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추진과 동력 확보를 위한 착수행사가 28일 개최됐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에서 충

남 태안까지 5개 광역시도 849km의 한반도를 횡단하는 숲길로 경북구간에는 우리금융 ESG 기금 8억원이 투입된다.

경북 구간은 275km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대상 시도에서 가장 긴 구간이며, 울진 등 6개 시군을 거쳐 충북으로 이어진다.

이철우 지사, 포항영일신항만 발전 로테르담항만에서 답 찾는다

〈네덜란드〉

18일~24일, 네덜란드·미국(LA)출장...스마트팜 벤치마킹·통상 확대 로테르담항만공사 사장과 상호협력사업 협의 및 벤치마킹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가 포항 영일신항만의 미래 발전 방향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에서 그 해법을 찾겠다고 지난 21일 언급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1명의 경북도 농업·경제사절단(공동단장, 배한철 도의회의장)을 이끌고 지난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네덜란드를 경유해 미국(LA)까지 국제통상교류 확대 및 우수기술 스마트팜 벤치마킹차 출장 중 지난 2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알라드 카스테라라인 로테르담항만공사 사장을 만나 네덜란드의 핵심 주력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네덜란드의 선진 물류산업 시스템을 경북 포항영일신항만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경북형 물류산업 모델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네덜란드는 배후 지자체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국제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로테르담항(만)은 인접 17개 지자체와 건설, 교통, 수송, 토지개발정책, 환경, 공공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성격의 도시행정 업무를 연계하고 있다.

이로인해 로테르담항(만)은 초기 항만도시 해운과 항만기능에서 탈피해 대규모 배후 물류단지과 시설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알라드 카스테라라인 항만공사 사장도 이철우 도지사 일행에게 "유류물류의 허브항이자 중심지인 로테르담항만을 비롯해 물류산업은 네덜란드 정부가 선정한 9개 핵심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항만 운영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물류산업을 배후 지자체들과 상호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육성하는 것에 초점에 두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로테르담항만공사의 경영운영 및 방향을 검토해 새로운 성장모델도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 지사 일행은 이날 오후에는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지 시설을 견학하고, 물류센터를 활용한 경북도 우수농수산물 수출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고 경북도가 22일

전했다. 이 지사 일행은 네덜란드 일정을 끝으로 22일 미국(LA)으로 이동해 이날 제49회 LA한인 축제에 참가해 경제·통상 강화와 농산물 미국 판로개척을 논의한 후 23일에는 현지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일정 마지막 날인 24일 뉴욕주 한인상공회의소와 100억불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귀국했다.

장지수 기자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 옛 추억 되살려

임관19·28기, 40·30주년 기념 행사 1천여 동문, 입영열차 타고 영천 도착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교장 방성대)는 23일 졸업생들의 요청으로 옛 추억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따르면 "졸업생들의 요청으로 매년 임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히고 이날 오전 학교 충성연병장과 대강당에서는 "19기 졸업생 임관 40주년과 28기 임관 30주년 기념행사에 1000여명의 두 동문 및 가족을 초청해 통합 임관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동문회측은 19·28기 동기생과 가족은 40년 전 입교 때처럼 입영 열차와 입영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고 생도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옛 추억을 되새겼다.

이들은 또 52년 전 부하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故 차성도 중위(육군3사관학교 1기)의 충혼비를 참배하고 전우의 희생정신도 기렸다.

또 기념행사 후 두 기수 졸업생들은 후배들을 위해 학교 발전기금과 격려금 각 1천만원씩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장지수 기자



<월남전참전자 영천시지회>...

영천, 월남전참전기념탑 준공 후 1년만에 준공 기념식

채명신 장군, 7개 참전부대, 649명 참전용사 이름 새겨

"조국이 부르는데 망설임이 있겠는가! 조국이 원하는데 무엇이 아까우랴!" 경북 영천시 마현산 근린공원에 세워진 월남참전기념탑에 새겨진 글귀다.

월남전참전자회 영천시지회(지회장 박석만)는 지난 23일 영천시 교촌동 11-74(마현산)에서 월남참전기념탑 준공식을 가졌다. 2011년 영천시지회가 사단법인으로 창립해 월남전참전자회가 국가유공자로 승격된지 10년 만이다.

월남전참전자회 영천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준공 기념식에는 강성미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이상순 국립영천호국원장을 비롯해 재직시에 기념탑사업 건립에 기여한 김장주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최기문 영천시장과 하기태 의회 의장, 각 시도의원 및 지역 보훈단체장, 월남 참전 용사와 그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탑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1964.7부터 1973.3까지 8년8개월 동안 지역만리 주월한국군(파이한)의 베트남정글 월남전에 파병되어 목숨과 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송고한 애국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정립·계승시키는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념탑은 국가유공자 승격해인 지난 2012년부터 준비해 도비 2억, 시비 2억5천만원으로 태극문양이 새겨진 8.8m 높이의 주탑과 군인 동상 조형물 1점을 둘러싸고 명호부대, 백마부대 등 7개 참전부대 전황, 채명신 장군 사진 등을 뒷 배경으로 649여명의 참전용사 이름을 새긴 명각비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2월 사실상 준공을 마쳤으나 회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 건립추진위원 명단을 수정·보완하면서 1년여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날 공식 준공기념식을 가진 것이다.

박한우 객원기자





전통시장
KOREA TRADITIONAL MARKET

사터오이쇼!
보구시어쇼!

제17회 영천큰장 고객사은대잔치



주/요/행/사

- 북타공연, 풍물길놀이
- 지삼음악예술단 공연
- 국악한마당
- 어울림마당, 경품추첨
- 포도 와인 체험
- 영화인문학습전
- 건강관리 체험

2022년 10월 17일 (월)

개회식 : 오전 11시
영천공설시장 3F 주차장 특설무대
(우천시 1층 중앙통로)

경품대잔치

- 온누리상품권 등 1,000여점

▶ 경품권은 영천공설시장 회원점포 및 후원업체에서 배부 ◀

영천공설시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입장 하실때나 행사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 하셔야 합니다.)

- 주최/  영천공설시장장인회
- 후원/  영천시  영천시의회
- GEPA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행사문의/ 영천공설시장장인회(☎ 331-1772)



포은초, 2022 교육감배 시·군대항 구간 마라톤대회 종합 우승

포은초등학교(교장 심선자)는 육상부 선수들이 지난 21일 예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22년 교육감배 시·군 대항 초·중 구간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초등부 우승, 초·중 종합우승의 쾌거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 포은초는 출전 선수 총 3명(4학년 2명, 5학년 1명)이 영천시 대표로 참여해 각 구간을 나누어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입구에서 출발하여 총 7구간을 거쳐 예천스타디움 결승점까지의 릴레이 마라톤 경기로 진행됐다.



영천중앙초, 학부모 공개수업·학교교육 설명회

영천중앙초등학교(교장 남의열)는 지난 21일 '2022학년도 2학기 학교교육설명회'를 개최해 학교 교육방향에 대한 설명과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각 반별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이후 진행된 학교교육 설명회는 지난 1일 부임한 남의열 교장의 인사말 시작으로 학교 환경 개선사항, 2학기 교육과정(학사일정),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육복지우선사업,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보호 교육에 관한 설명을 통해 학교 교육의 이해를 확대했다.



영동고 교사 전문가 11명 초청 대입 중심 교육과정 컨설팅

영동고등학교(교장 정인수)는 2021년 6월 서울대에서 발표한 선택과목 안내 외에 아직 뚜렷한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14일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교육과정 설계 및 진학 로드맵 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8월 9일부터 2박 3일간 본교 교사 10명이 서울에서 실시된 수도권 주요 8개 대학(고려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건국대·동국대) 입학사정관과의 간담회 참여 후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



포은고, 단위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 개최

금호여중·포은고(교장 박영남)는 지난 21일 본교 학교협동조합 금포카페에서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학부모 교실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열려 본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민, 관내 학부모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는 교육활동 홍보 자료 시청, 학부모회에서 만든 친환경 비누 나눔 행사, 재미있는 환경 퀴즈쇼, 반려 식물 기르기, 나만의 토피어리 제작 실습 순으로 진행됐다.



영천여고, 등교시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영천여자고등학교(교장 신덕섭)는 14일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이 언어폭력 및 사이버폭력의 경각심을 알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평천초, 수확한 포도로 와인만들기·원예체험 학습

평천초등학교(교장 정인진)는 지난 21일 대창면 소재 블루섬 와이너리에서 와인만들기 및 원예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포도를 접하고 특산물을 이용한 농촌 경제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됐다.



영천여자중학교, 또래상담 홍보·학교폭력·학업중단 예방

영천여자중학교(학교장 김경숙)는 15일 등교 시간 교문 앞에서 솔리언또래상담자 학생들이 또래상담 홍보 및 학교폭력,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본교는 이번 캠페인 활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특히,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중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윈드오케스트라 등꽃길음악회

영천중학교(교장 김미라)는 지난 22일 영천중 윈드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참여한 '등꽃길 음악회'를 실시해 등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연주를 선보였다. 본 행사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과 후 수업시간을 통한 음악연주로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목적으로 진행됐다.

영천시, 민선8기 공약이행 평가단 위촉... 4대 분야 공약 확정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민선8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8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과 지역별 추천으로 구성해 민선8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공약사업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호 前 대구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평

가단은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공약사업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4대 분야, 34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과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한 ▲산업·경제 14건 ▲농업 6건 ▲복지·교육 11건 ▲문화·관광 3건 등 4대 분야, 34건의 공약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보완 후 10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북(Book)적북적 데이'

영천시는 지난 24일 독서의 달을 맞아 영천시립도서관에서 '북(Book)

적북적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3년동안 열리지 못한 '제19회 좋은 어린이책 전시회' 신간 그림책 전시가 진행됐다.

또 어린이가 여는 베풀시장은 지역 내 어린이와 가족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고 그 외에도 작가와의 만남, 샌드아트 및 풍선쇼 등도 진행됐다.

도서관 우수 이용자 시상식에서는 배성욱 가족, 황윤정 가족 등 2가족과 성인부문 이재경, 허영옥, 청소년부문 박수민, 김예슬, 어린이부문 정시훈, 정하린 등이 수상했다.

김효정 기자

민원실 인공지능 AI 방역 로봇 시범운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천시청 민원실에 인공지능(AI) 방역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민원과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소독방역 시스템을 24시간 운영으로 AI 방역 로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I 방역 로봇은 24시간 자율 주행하며 종합민원실 바닥 및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을 살균하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 민원인에게 공기질의 상태까지 안내한다. 또한 인체에 무해하고 바이러스를 99.9% 이



상 살균하는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으로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도 방역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추가 시행 60% 지원

설치 희망 농가 30일까지 신청

영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에는 55개 농가를 지원했고 이번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

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관내 농민이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최근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올라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8,000원 철선: 2,304,000원)를 지원받으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 관리해야 한다.

김효정 기자

영천보건소,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영천시보건소(소장 박선희)는 야생진드기로 인해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발생할 수 있어 야생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피부 노출 최소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9월부터 11월은 야생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가을 행락철을 맞아 등산이나 농작물을 수확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영천시보건소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 안내와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것을 전광판 3개소, 마을방송, 재난문자를 활용해 홍보 중이다.

영천지역 노동법률상담소

○ 무료노동법률상담소 운영

▶ 노조·노무·회계·일반법률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분쟁을 상담원, 변호사, 노무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으로 무료로 상담해 주고 지도함으로써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해소하고 건전한 노사관행을 정착시켜 사회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한국노총 영천지역지부

○ 지역 노동자를 위한 각종 홍보, 교육, 행사, 복지사업 등을 지원

▶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지원, 관련기관(영천상공회의소, 영천시취업지원센터 등) 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근로자 한마음갯기대회 개최, 각종 교육 및 복지사업 지원 등

주소 : 영천시 보목2길11 근로자복지회관

전화 : 054-333-9870 fax : 054-332-9870

영천시의회 첫 번째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올해 사업 마무리



하기태 의장 박주학 의원 이영기 의원 이갑균 의원

“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 의정연구회” 다음달 6일까지 4개 의원연구단체 모두 결성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가 올해 첫 번째 의원연구단체 ▲'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대표 박주학 의원)를 결성하고 27일 의회간담회장에서 용역 착수보고회와 함께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위한 연구' 대표 하기태 의장
- ▲'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 대표 박주학 의원
- ▲'영천관광활성화를 위한 레프팅사업 개발 방안 연구' 대표 이영기 의원
- ▲'영천시농촌일자리 창출·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대표 이갑균 의원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영천시의회는 27일 이번 첫 번째 의원연구단체 결성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네 번째 의원연구모임 단체가 모두 결성돼 연구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은 의원 1인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3명을 한 조로하여 각 조당 사업비 1500만원을 한정해 총 4개 단체가 결성될 예정이다. 목

적은 각 상임위원회 구분없이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와 조례입법, 정책개발 등을 위한 연구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성해야한다. 특히 사업기간이 회계년도 이내로 되어있어 제9대 의회는 올 하반기에 임기가 시작된 만큼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한다. 의회사무국과 의원 등에 따르면 두 번째 단체는 이영기 의원을 대표로 하는 ▲'영천관광

광활성화를위한 레프팅사업 개발 방안 연구'로 오는 29일 착수할 예정이며, 세 번째는 이갑균 의원을 대표로 ▲'영천시농촌일자리 창출 및 영농인력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다. 끝으로 네 번째는 하기태 의장을 대표로 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을 위한 연구'로 김선태·김용문 의원이 합류한다. 이날 가장 먼저 용역을 착수하는'복숭아 시설재배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대표 박주학 의원)는 권기환·배수에 의원 3명이 동참해 남은 3개월간 관련 법령검토와 사례연구, 그리고 농민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복숭아 시설재배의 활성화를 통한 영천시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연구 수행에 들어간다. 장지수 기자

전국노래자랑 영천시편, 27일 영천강변공원에서 녹화

최우수상 금호읍 정재욱씨
KBS1TV 11월중 방영 예정



최우수상을 받은 정재욱씨

KBS전국노래자랑 영천시편 녹화가 27일 영천강변공원에서 영천시 추산 2,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수상은 '남자는 말합니다'를 부른 금호읍 정재욱씨가 차지해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개그우먼 김신영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녹화는 지난 25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된 1,2차 예심을 거쳐 최종 합격한 15개팀이 경합을 벌였다. 또 박현빈, 류지광, 우연이, 정다한, 김연자 등이 초대가수로 출연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번 녹화방송은 오는 11월 중 KBS1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박한우 객원기자

“고경면 석계리 메밀꽃밭으로 오세요”

새마을부녀회, 메밀꽃 포토존 설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 석계리 301-2에 메밀꽃이 만개해 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혜안)가 포토존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다. 고경면 새마을부녀회는 국도 28호선 주변 이곳에 지난 8월1일 3,000여㎡의 들판에 메밀꽃밭을 조성했는데 벌써 꽃이 만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부녀회는 메밀밭 가장자리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간이 포토존을 설치했다. 김효정 기자

부녀회와 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관광객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김효정 기자

영천 가을행사 10월과 11월 각종 행사·축제 포화

9월 30일 영천강변공원 영천축협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20~60%) 할인

<10면 광고>



경북 영천이 가을축제로 들쭉인다. 올해 19회째인 전국 최대 별빛축제가 오는 10월1일부터 3일까지 보현산 일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왕평가요제와 영천문화예술제 등 10여 행사가 11월까지 줄줄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 이보다 앞서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나흘동안에 영천축협에서 명품 한우구이

축제와 각종 체육행사는 물론 제10회 영천와인페스타(10월1일), 축산인 한마음대회(9월30일) 별빛축제 개막(10월1일)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또 10월 14일부터는 제20회 영천한약축제와 제21회 과일축제, 제48회 영천문화예술제,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및 각종 체육행사 등 휴일마다 이미 짝 찼다. 이들 축제는 영천한약마을, 영천강변공원과 영천체육관 등 영천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달 27일 오후 1시에 전국노래자랑 영천시편 녹화방송이 영천강변공원에서 가을축제의 신호탄을 쏜다. 이어 30일부터는 3일간 지역 한우 먹거리 판매로 본격적인 행사 포문을 연다. 영천축산농협(조합장 김진수)은 이날 강변공원에서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를 개최하고 한우 등심과 갈비살 및 불고기 등을 20~60%까지 할인해 먹거리로 가을 축제를 풍성하게 리더할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영천시, 한약축제 기간 중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제20회 영천한약축제 기간인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스타전문정비 영천시협의회(회장 조명길) 회원 60여 명이 자원봉사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주차장(영천시 장구동 184-7 일대)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등화 장치 및 윈도 브러쉬 등 소모성 부품 교체와 각종

오일류, 워셔액, 부동액 등의 보충 서비스를 차량 상태에 따라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후 추가 정비가 필요한 차량은 점검표를 작성하여 해당 차주에게 전달한 뒤 사후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자동차 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보험 운행, 불법구조 변경,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범법 행위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The 26th Wangpeung Song Contest

왕평 가요제

왕평예술 혼잇기

2022년 10월 16일
일요일 오후 6시
영천 강변공원 주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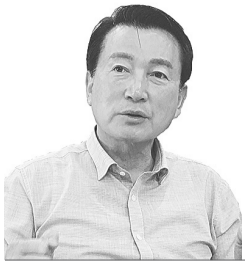
1부 축하공연: 오후 4시

- 왕평가요제 출신 가수
- 초청가수

주최: 왕평국예총회, 영천시의회, 주관: 왕평국예총회, 영천시의회, 왕평가요제추진위원회, 주관방송: TBC

후원: 영천시, 영천시의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왕평국예총회, 왕평국예총회, (사)한국연예인의회, 경상북도지회

우종철 칼럼



우종철
(본지 객원논설, 일요서울 논설주간)

중국의 동북공정 망동과 대조영
(東北工程)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 조선족박물관이 발해를 건국한 고구려 유민 대조영(大祚榮, ?~719, 재위 698~719)을 '말갈 수령'으로 표기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7월 베이징에서 개막한 고대 청동기 유물전시회의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제외했다. '중국몽'에 도취된 중국이 고구려사와 발해를 한국사에서 지워버리는 역사조작을 감

행한 것이다. 정부는 단호한 대응으로 중국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야 한다.

중국은 이 같은 '동북공정' 망동(妄動)을 계속 저지르고 있지만,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외교 문서에 발해의 임금을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한 점 등으로 볼 때 고구려를 계승한 한민족의 나라가 틀림없다.

총무공이순신함과 문무대왕함에 이어 세 번째로 건조된 해군의 4500t급 구축함이 '대조영함'이다. 발해를 건국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한 대조영의 진취적 기상을 계승하기 위한 뜻이 반영된 명칭에서 그가 한국사에 남긴 업적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준다.

고구려는 668년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 676년 '나당전쟁'에서 승리한 신라는 대동강 이남을 차지했지만, 북쪽 지역은 당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 옛 영토 대부분은 신라와 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힘의 공백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남았다. 당은 고구려의 옛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영주독부'를 설치하고, 고구려 유민을 강제로 영주 지방(조양 일

대)으로 이주시켰다.

그 결과 원주민인 거란족, 이주해온 고구려 유민 그리고 말갈족 등이 영주 지방에 섞여 살게 되었다. 그런 도중인 696년. 당에 대해 거란족 이진충(李盡忠)과 손만영(孫萬榮)이 '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영주 지방은 큰 혼란에 빠졌고, 걸걸중상(乞乞仲象)과 그 아들 대조영은 말갈 추장 걸사비우(乞四比羽)와 함께 억류되어 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으로 이동하였다.

당은 걸걸중상에게 진국공(震國公)을, 걸사비우에게 허국공(許國公)을 책봉하며 회유하려 했으나, 이들은 거부했다. 이에 당의 측천무후는 거란 출신 이해고(李楷固)에게 대군을 주어 토벌하도록 했다. 당군이 공격해오자 걸사비우가 먼저 교전했으나 대패하여 죽고, 걸걸중상은 병사했다.

당군이 계속 추격해 오자, 패전한 말갈족을 흡수하여 대열을 재정비한 대조영은 백두산 아래쪽에 있는 천문령(天門嶺)에서 적을 맞아 크게 격파하였다. 그 뒤 동부 만주 쪽으로 이동해 길림성 둔화현(敦化縣)에 있는 동

모산(東牟山)에 성을 쌓고 도읍을 정하였다. 698년. 마침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발해(渤海), 연호를 천통(天統)이라 하였다.

대조영은 건국 후 돌궐과 국교를 맺고,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발해는 만주·연해주·북한 지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중종 때 당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은 후 15대왕 230년간 지속했다. 발해라는 국명은 지금 요동반도 앞의 발해만(渤海灣)으로 면면히 살아 있다.

일본 기록에 "그 나라는 말갈이 많고 고구려인이 적지만, 고구려인들이 모두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최치원도 "옛날의 고구려가 지금의 발해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758년 발해 사신이 일본에 전달한 국서에 발해 문왕은 자신을 '고려국왕'이라고 했다. 발해 멸망 후 고려로 귀부(歸附)해온 고구려 계통에 대해 왕건이 후히 대접한 것도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지 객원논설 겸 일요서울 논설주간 우종철 박사(자하문 연구소장) 현 사)영호남상생발전포럼 이사장, 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한국문인협회 정회원 -저서 「포용의 리더십」 「신뢰와 원칙」 「상불망」 「통일대와」 등>

독자기고

유시홍(柳時洪)

제40대 유종회장
(영천 현대서비스 대표)



유종회(維宗會)를 말하다

산업화로 인해 가문을 보존하는 문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의 가치질서는 파괴되고 새로운 생활지표는 설정되지 아니한 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고 있다. 근대화를 거치면서 생활은 한없이 편리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으나 우리의 정신세계는 크게 황폐해져 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자기와 가족 중심으로 자아를 급속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날이 갈수록 인간의 탐욕은 깊이를 더한다. 인심이 흉흉하고 조상의 유덕(遺德)은 날로 빛이 바래며.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숭조사상(崇祖思想)이나 문중에 대한 향념(嚮念)은 잊은 지 오래이다.

고매해야 할 우리의 정신이 물질적, 관능적 향락에 젖어들고 윤리와 도덕성은 인간의 뇌리에서 자꾸만 잊혀져 간다. 우리에게 공동체 붕괴는 인간 사회 전체의 파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우리는 현실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스스로의 정신무장과 더불어 조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후세에 전해야 하는 책무도 분명 있다. <글, 유시홍(柳時洪), 제40대 유종회장>

유종회(維宗會)의 본(本) 회(會)를 구성하는 7대문중의 조직은 ①여강이씨(驪江李氏)의 유심회(惟心會) ②풍산류씨(豊山柳氏)의 부용회(芙蓉會) ③의성김씨(義城金氏)의 청류회(靑流會) ④진성이씨(眞城李氏)의 동인회(同人會) ⑤인동장씨(仁同張氏)의 인의회(仁義會) ⑥재령이씨(載寧李氏)의 자미회(紫薇會) ⑦전주류씨(全州柳氏)의 기산회(岐山會)

당시는 서흥김씨, 여강이씨, 풍산류씨가 만나 친목모임을 가졌다. 서흥김씨는 한훤당 김굉필 후손, 여강이씨는 회재 이언적의 후

손(良佐會), 풍산류씨는 하회 입향조 류종혜 후손(芙蓉會)으로 구성되었다. 추모지향(鄒魯之鄉)이라 불리는 영남에서 유학의 기틀이 마련되고 함께 성장하고 싹타래처럼 엮힌 선조들의 정(情)과 세의(世誼)도 기리고자 했다. 이들은 참여하는 가문을 확대하고 매년 가문별로 상호방문 행사를 계획했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서흥김씨가 문중 사정으로 더 이상 모임에 참가치 않는 아쉬움이 발생했다.

1980년. 유종회는 의성김씨 청계 김진 후손(靑流會), 진성이씨 송안군 이자수 후손(同仁會), 인동장씨 인동 향내 5파 후손(仁義會)이 가입해서 5개 단체의 모임으로 재출발했다. 1990년에는 재령이씨 영해파 운악 이합 후손(紫薇會)이 가입하고 2001년에는 전주류씨 수곡파(岐山會)가 승차함으로 7개 단체의 조합이 이뤄졌다.

유종회(維宗會)는 매년 유사(有司)가문을 정해 선현유적지를 심방(尋訪)하며 문중을 소개하고 선조들의 세의도 확인한다. 정기총회 때 유종회헌장(維宗會憲章)을 낭독하면서 초심(初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 다잡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명문(名門)의 후손답게 위로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성(誠)을 다하고, 아래로는 후손들의 숭조정신의 깊은 뜻을 고취하는데 힘쓴다. 안으로는 조상의 유훈을 오늘에 조명하여 생활의 기조로 삼고, 밖으로는 조상의 유덕을 길이 선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유종회(維宗會)의 지표다.

유심회(惟心會) 여강이씨는 범 여주이씨의 경주파다. 이언적은 『대학장구보요』를 저술하여 조선 유학의 흐름을 실전 중심의 『소학』에서 사유 중심의 『대학』으로 흘러가는 물꼬를 텃었으며, 미완의 『중용구경연의』는 이후 학자들의 백과사전식 저술의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당시 사회(士禍)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경주지방 출신으로 좌찬성까지 올라 사후에 문원(文元)이라는 시호와 함께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이후 후손들은 선조의 삶에 누가 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여 후손 중에 40분이 문집을 남기고 57분이 유고를 남겼다.

부용회(芙蓉會)의 풍산류씨는 하회마을 입향조인 류종혜 이후 관찰사 입암 류종영과 아들인 검암 류운룡, 서애 류성룡 형제에 의해 명문가로 발돋움한다. 서애 류성룡이 1580년 상주목사를 지내면서 맺은 제자들로

인해 류성룡-정경세-류진-류원지-정도응-박순경-정종로-류심춘-류주묵으로 이어진 퇴계학의 서애학맥을 형성했다. 충효(忠孝)를 가훈으로 내세운 기풍을 바탕으로 영남 남인으로는 드물게 벼슬과 학문에서 현달하신 선조가 많았다.

청류회(靑流會)의 의성김씨 내앞(川前)파는 안동 입향조 13세 거두(居斗)이후 풍산-안기-신령등지를 거쳐서 17세 만근(萬근)이 내앞에 정착한 이래 600여년의 세거를 이루고 있다. 19세 청계 김진(金堧)은 자신들에게 "사람이 바른 도리로 죽을지언정 도를 굽혀 사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들이 君子가 되어 죽는다면 나는 살았다고 보고, 小人이 되어 산다면 나는 죽었다고 보겠다"고 훈육하여 약봉 김극일, 귀봉 김수일, 운암 김명일, 학봉



김성일, 남악 김복일 등 아들 다섯을 과거에 급제시켜 「오자등과택(五子登科宅)」으로 불리게 하고, 후진들은 육부자(六父子)의 위패를 사빈서원에 모시고 있다.

동인회(同人會)의 진성이씨는 진보 이촌(李村)에서 풍산 마애로 송안군이 이거한 이후로 주촌(주두), 마애, 온혜에서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송재 이우와 온계 이해, 퇴계 이황에 이르러 가문이 성장하였다. 특히 퇴계 이황은 남명 조식, 율곡 이이와 더불어 조선 성리학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이다. 불천위로 제수된 선현은 9位이며 『송재선생문집』을 효시로 하여 『퇴계선생문집』 등 저술을 남긴 학자가 346분이고, 60분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명문으로 대표적 독립유공자 집안이다.

인동장씨의 인의회(仁義會)의 인의(仁義)는 인의예지(仁義禮智)에서 따 온 말이다. 仁(인)과 義(의) 孝悌忠信(효제충신)으로 인동에서 천년의 종기(宗基)를 이어왔다. 여헌 장현광(張顯光)은 인동장씨 가문이 배출한 대유학자로 서애 류성룡이 그의 학식에 감복하

여 아들(衫)을 그의 문하에서 배우게 할 만큼 뛰어난 학자였다. 가문의 기풍은 충절과 가학을 중시했다. 대과급제자는 인동 향내(鄉內) 5파 18분에 이른다.

자미회(紫薇會)의 재령이씨는 경주이씨(慶州李氏) 중시조 소관공 거명(居明)의 후손 이우칭이 고려조에서 보조공신(補祚功臣)에 책록되고 문하시중을 지낸 후 재령군에 봉해졌다. 후손들은 우칭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식읍으로 하사받은 고을 재령(載寧)을 본관으로 삼아 경주이씨에서 분적하였다. 중시조이신 소봉(小鳳)은 공민왕의 부마로 순성보조공신에 오르고 상장군을 역임하였으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자 가족과 더불어 밀양 서쪽 소음촌(召音村)으로 은거하였다. 영해 입향 선조이신 현령공 이애는 부제학 근재공 이맹현(李孟賢)의 여섯 번째 아들이고, 손자가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의령현감을 지내신 운학(雲嶽) 이합(李涵)이며, 경당 장흥효의 무남독녀인 장계향(張桂香)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니 이가 곧 여성군자로 칭송받으며 우리나라 최초 한글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저술하신 정부인(貞夫人)이시다.

기산회의 전주류씨(岐山會)는 고려말 장령공 완산백 류습(柳濕)을 시조로 하여, 조선 초기부터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대대로 한양에 거주하였고, 사환(仕宦)이 끊이지 않았으며, 낙남시조 인의 류윤선(柳潤善)은 처가인 영주에 이거 하였고 장남 사복시정(司僕寺正) 류성(柳城)이 의성김씨 청계(靑溪) 김진(金堧)의 사위가 되면서 무실(武實)에 정착하게 (1560년경) 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류성의 두 아들 중 장자 기봉 류복기는 분연히 몸을 일으켜 「신사하석(身死何惜)」(이 몸이 죽음을 어찌 아가워하겠는가!) 이라는 말을 남기고 「안동열읍 향병」을 창의하였다.

이같이 유종회(維宗會)는 조상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후손에게 전승해 가길 기원한다. 가문의 선현을 배우고 그들의 학행을 계승 발전시키며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정신은 작은 촛불이 되어 내 자신을 비추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밝히며 나아가 국가민족과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구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유종회(維宗會)는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철우 “태풍피해 완전극복 긴급지원” 경북도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입법 해결 강조, 국가투자예산 정부안 미반영 사업 해결 촉구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태풍피해 완전극복 긴급지원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10월부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교감과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현안 및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논의 자리로 이철우 지사와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헬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법제도개선을 집중 주문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농산어촌 대전환 ▷원자력 기반 세

계 최고수준 청정에너지 벨트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 통과 건의 등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사업에 대한 공감대도 나눴다.

또 이 지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과 재해복구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완화, 국가 기간산업인 포항철강단지 정상화를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태풍으로 포스코가 물에 잠기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포항경주지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지역 국회



의원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방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보훈단체가족 한마음문화 행사… 회원 간 화합 도모

보훈단체 회원 240여 명 영천의 주요 관광지 탐방

영천시보훈단체협의회(회장 김만희) 27일, 28일 양일간 영천 지역 주요 관광지의 문화체험과 오찬 등으로 ‘보훈단체가족 한마음문화 행사’를 열었다.

이날 보훈단체 회원 240여 명은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영천목재문화체험장, 영천한마음을 등 영천의 주요 관광지에서 다양한 볼거리

와 체험활동을 통해 그동안 만나지 못해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고 오찬을 즐겼다.

김만희 보훈단체협의회장은 “이번에 마련된 보훈단체가족 한마음문화 행사가 보훈가족을 위로·격려하고 보훈단체와 회원 간 화합과 교류는 물론 보훈가족들의 소중한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정 기자



2022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

힘내자! 영천축산인! 20%~60%할인

한우등심 등심(100g) 1++ 등급 13,500원 → 10,800원 1+ 등급 11,800원 → 9,400원 1등급 10,800원 → 8,000원	한우갈비살 갈비살(1+등급이상/100g) 14,000원 → 11,200원	한우불고기 불고기(1등급이상/100g) 5,000원 → 3,000원
한우국거리 국거리(1등급이상/100g) 4,400원 → 3,600원	우족 (개당) 19,000원 → 15,000원	사골 (100g) 800원 → 400원
잡배 (100g) 500원 → 200원	한우고기곰탕 (5개입) 35,000원	한우 사골곰탕 (5개입) 20,000원

* 준비된 상품이 모두 소진되면 판매가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영천축산농협 영천별빛한우브랜드사업단 후원 영천시축산연합회

폴리텍 영천로봇캠퍼스에 해외에서도 견학 발걸음

1인 1협동로봇 시험 시설 탐방 베트남 직업교육훈련 연수생 호응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학장 이연보)에 교육환경 견학차 국내에서 이제 해외에서까지 발걸음이 이어지고있다.

학교측에 따르면 지난 21일 베트남 직업교육훈련원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수생 21명이 직업기술교육훈련역량강화를 위해 로봇캠퍼스를 방문했다.

이번 베트남 직업교육훈련원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다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초청 연수로, 국내 선진교육 시설탐방의 일환으로 진행돼 1인 1협동로봇을 시험하는 등 연수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어 지난 22일, 23일 양일에는 서울로봇고등학교 1학년 학생 140여 명이 진로체험을 위해 로봇캠퍼스를 찾았다. 학생들은 러닝팩토리 교육훈련장비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자율



(사진은 베트남직업교육훈련원 방문)

주행모바일로봇 체험’, ‘3차원 내비게이션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러닝팩토리 교육훈련장비를 직접 체험했다.

이연보 학장은 “로봇캠퍼스는 로봇을 배우고, 로봇 융합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다. 뛰어난 교육 환경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을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는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로봇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호정 기자

영천시, 지적측량 경북도 경진대회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

시 지적정보과 천경할, 박소영, 임민혁

영천시가 ‘2022년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70만원과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수상이다.

시 지적정보과(3명) 천경할, 박소영, 임민혁 팀은 27일 안동 그랜드호텔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 2022년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 참가해 정밀한 지적기술과 역량을 발휘해 이같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 2018년 우수, 2019년 최우수 및 전국 지적측량 경



영천시 지적정보과 천경할, 박소영, 임민혁 팀(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전진휘 지적정보과장)

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적적 공무원의 측량장비 운용능력과 기술을 인정받았다.

김섭 변호사의 法鏡



대표 변호사 김 섭
성광합동법률사무소

이자제한법이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 초과 약정은 무효

초과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

2011.10.26일 이후 부터는 이자제한법 의무

문 지인으로부터 연 30%의 이자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저의 형편으로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때 갚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자제한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를 초과하는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그 초과된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만약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초과지급된 부분의 이자는 원본(금)에 충당되고, 이미 원본이 소멸되었다면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대여금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자 제한이 없다.

선이자를 시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된다.

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무효다.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2011년 10월 26일부터는 채권자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또 2011년 10월 26일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특히 종전 이자율에 의거하여 이자를 받아온 경우라도 2011년 10월 26일부터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의 한도 내에서만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이다.

☞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김섭 법률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348-15, 울촌빌딩 501호
전화 053)755-7500

세무



윤 영 민 세무사
세무회계 바로

창업과 세금... 사업자등록증의 중요성

사업개시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고해야

매입세액 미공제, 가산세 대상될 수도

청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불이익은 2가지이다. 첫 번째는 매입세액의 불공제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월에 물품을 매입하거나 인테리어를 한다면 적어도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넘겨서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가산세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할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한다.

창업을 준비하면 챙길 것이 많겠지만 사업자등록을 소홀히 하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발생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직장생활을 마치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의 기한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본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

[사설]

선출직 아킬레스... 표를 위해서는 고개부터 숙인다

제225회 영천시의회 정례회(추경안) 시민체전 예산(10억원) 삭감(분지 9월17일자 347호 보도)을 놓고 시민의 대의권의 합리적 예산심사였다(의회)와 의도적 행사 보이콧이다(체육회)며 시의회와 영천시체육회가 정면 충돌해 적잖은 논란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체육회는 기습 항의 집회와 규탄 성명 및 현수막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다. 이제 예산을 쥐도 체전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의회는 "시민의 뜻에 따른 올바른 합리적 의결로 체전 보이콧이 아닌 연기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오히려 체육회 항의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예산 삭감 뒷배경이 의회(이만희)와 체육회(최기문)로 번지고 있다.

의회 예산 삭감사유는 ▲올해10·11월은 그동안 코로나로 못했던 행사가 한꺼번에 밀려 중복되면서 시민체전까지 개최할 경우 행정낭비 우려가 있고, ▲추경의 10억원은 큰 액수로 11월 3일 개최는 (1개월만에)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본예산을 세워) 올 연말이 아닌 내년 4월 개최 하자. ▲ 아직 코로나(하루 200여명 확진) 확산 우려도 많고, 11월 초면 양과·마늘 파종기로 참여가 쉽지않다 며 12명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삭감했다. 그것도 상임위 6명, 예결위 6명, 본회의에서 12명이 3차례 과정을 거쳐 내년 봄에 차분히 대회를 치루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반면 체육회는 2019년을 끝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시민체전을 중단했다. 시민체전은 통상 본예산으로 개최해 왔다. 하지만 체육회(영천시)는 이번 체전에 (2022년)본 예산마저 편성하지 않고 포기했다. 연초(2월)만 하더라도 체전 개최 여부가 보류됐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코로나 비대면이 풀리고 지난 6.1지방선거 직후(6월27일) 읍면동체육회장 월례회(화북면) 자리에서 최 시장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 뒤늦게 7월에 들어서면서 개최 논의가 가시화했다.

더군다나 제9대 의회가 개원하고 각상임위가 구성되자 지난 7월14일 최기문 시장이 의회에 직접 올 하반기 영천시 행사계획(표)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지만 여기에 도 체전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 한 흔적

시민체전 예산 삭감, 시체육회와 의회 충돌

시체육회,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 각오해야

의회, "의원 만장일치 예산심사는 시민 뜻 따른 것"

이 역력하다.

예산 증액도 의회와 사전 논의(간담회 등)가 없었다. 시 간담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다지만 당초 6억원이 10억원으로 경총 뛰었고, 지난 8월24일 이번 9월 추경(의회)에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이미 각 읍면동별로 3300만원씩 지원된다고 공포하여 각 체육회장들은 그렇게 알고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의회 승인이 거절되면서 대회가 무산되자 각 읍면동체육회장들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체육회의 진두지휘로 이같은 항의가 시작된 것으로 취재됐다.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과 시체육회와의 이같은 결과에 대한 사전 정보 소통이 부족 한면이 적지않다.

박봉규 체육회장의 "그동안 의회에 수없이 찾아가고 전화와 미팅으로 예산 승인을 요청했는데도 의회가 의도적으로 이번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지역 한 체육 행사자리에서 A 의원은 "자꾸 말로 선동하시는데 언제 누구에게 10억원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을 설명했느냐"는 반박도 예사로와 보이지 않는 대목이다.

문제는 죄없는 뒷배경설이다. 앞서 체육회는 지난 8일 이번 예산안 예결위 삭감이 결정되자 곧바로 추석 다음날인 11일 오후 6시30분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을 긴급 소집해 집회와 현수막으로 의회 항의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예산 삭감 뒷 배경에 제3의 힘(이만희 지칭)이 작용했다는 발언이 나왔고, 일부 체육회장이 "증거가 있느냐? 정치적으로 몰고가면 안된다"며 이탈하는 체육회장들도 있었던 것으로 취재됐다. 하지만 체육회장은 집회를 강행했다. 그것도 신고도 없는 불법집회다.

일각의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워낙 강한 체육회의 반발에 단순 민간 체육회장 단독으로 뒷배경(이만희) 운운하며 의회(국민의힘)를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느냐며 오히려 또다른 뒷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을 지목하는 대목이다. 박봉규 회장은 펄쩍 뛰지만 최 시장이 시체육회장의 뒤에 숨었다는 의혹이 의원들 간에 술술 피어오르고 있다.

연간 60억원의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받는 민간체육단체가 돈을 쥐는 권 의회에 이처럼 기습 불법집회를 하면서까지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것도 사전 집단 모의로 80여장의 현수막까지 게시하며 여론전으로 시민들까지 선동하는 것은 여간한 배짱이 아니다. 믿는곳 없이는 불가능한 액션이 아닐 수 없다는게 의회의 시각이다.

판단은 시민 몫이다. "11월은 마늘과 양파 파종기로 내년 4월에 개최하자"는 예결위원장의 설명에 한 읍면동 체육회장은 "11월보다 4월이 더 바쁘다. 시의원이 어느 시기가 더 바쁘지도 구분 못하느냐"며 비난했다. 지난 마지막 시민체전은 2019년 4월 11일에 개최됐다 그리고 대부분 시민체전은 주로 4월과 5월에 개최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회 승인도 받기전 시민체전을 한다고 미리 공개하고 예산까지 각 읍면동에 3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시체육회장, 그리고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예산 전액을 삭감한 시의회, 누가 이같은 마타도어 그림을 그렸는지는 시민이 판단할 몫으로 남았다.

영천신문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장지수 | 인쇄인(취종양일보)
대표전화 332-2400 | FAX 335-6600 | E-mail ycn@yctoday.net
구독료 : 월 5천원, 1년 6만원,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7
계좌번호 : 농협 301-0093-9954-51 (취영천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영천신문’의 인터넷판
‘영천투데이’를 클릭하면
오늘이 보입니다 Best!
홈페이지(영천신문과 공통)
www.yctoday.net
기사제보 : yctoday1@naver.com



2022 청송사과 트레일런 Apple Trailrun 2022

청송사랑상품권 1만원 증정

- ▶ 일 시 : 2022년 10월 16일(일) 오전 10시
- ▶ 종 목 : 산악하프코스, 10km, 5km, 청송정원 걷기코스
- ▶ 주 최 : 청송군, 매일신문사
- ▶ 참가비 : 산악하프코스, 10km코스-3만원
5km코스, 청송정원 걷기코스-2만원
- ▶ 기념품 : 청송사랑상품권 1만원, 배번호, 기록칩,
완주메달, 기록증, 간식 등
- ▶ 행사내용 : 마라톤대회 진행, 치어리더 공연, 청송사과 시식회 등
- ▶ 참가접수 : www.csmarathon.co.kr
- ▶ 문의전화 : 02-2208-7242

